

자료제공 : 2026. 6. 11.(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참고자료

담당 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영동대로 복합개발추진단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영동대로 복합개발추진단장	권순환	02-6438-2808
사업총괄과장	박노성	02-6438-2810
관련 누리집	-	

오 시장, “과도한 정치공방으로 GTX-A 개통 일정 지연·재정부담 안타까워”

- 당초 7월 보강공사 완료 계획... 국토부 등 추가 검토로 11월 이후로 지연 우려
- 강판 보강시 기둥 강도 1.1배 확보, 국토부도 94회 시험운행 실시한 안전 확인 사안
- 보완가능한 시공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선거쟁점화로 시민편익 최대 6개월 지연
- 오 시장, “안정적 보완시공 진행시 안전과 신속 시공 두 마리 토끼 잡는 의사결정”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목)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6회 정례회에서 “구조전문가와 관계기관 점검을 통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의 안전성이 확인됐고, 보완 가능한 시공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화·선거 쟁점화하면서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이 11월 이후로 지연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또한 “일부 언론이 진행 과정을 생략하고 마치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시민들에게 상당기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강조했다.

<당초 7월 보강공사 완료 계획… 국토부 등 추가 검토로 11월 이후로 지연 우려>

-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과정에서 일부 기둥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지난해 11월 확인한 직후 자체 안전 점검과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해 안전성 검토와 보강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 당시 확보된 기둥 강도는 실제 작용하중의 1.53배 수준으로, 지하 3층 공사 완료 시까지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감리단 보고와 구조전문가 검토 결과를 확인했으나 서울시는 더 안전한 시공을 위해 조속히 보강방안을 수립해왔다.
- 이후 서울시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강판 보강공법을 확정했으며, 보강 완료 시 기둥 강도는 준공 후 예상 작용하중의 1.1배 수준으로 당초 설계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시는 보강방안 확정 후 4월 24일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자료를 공유했고,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 보강방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4월 29일 야간 긴급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5월 6일~8일까지 외부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구조물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보완가능한 시공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선거쟁점화로 시민편익 최대 6개월 지연>

- 이후 국토교통부 또한 4월 30일 일시 중지했던 GTX-A 노선 삼성역 무정차 시험운행을 5월 4일 재개했고, 5월 19일까지 총 94회의 시험운행을 실시했으며 이는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시는 설명했다.
- 오 시장은 “국토부가 시험 운행을 실시할 정도로 안전이 확인된 사안이라면 굳이 시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선거 기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보완시공을 진행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안전과 신속시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국토부의 공개는 사실상 실익이 없었으며, 오히려 보강공사가 늦어지면서 서울시민이 누릴 수 있었던 편익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지연되는 결과만 남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영업시운전과 보강 공사를 병행해 당초 계획대로 7월 내 공사를 완료하고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왔다.
- 그러나 안전성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안이 과도한 정치적 공방과 추측성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관계기관의 추가 검토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이 11월 이후로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현재 국토부 요청으로 콘크리트학회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용역으로 5~7월 중 가능했던 보강공사가 불가능해졌다”고 밝히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과 경기도민 불편은 물론, 이에 따른 하루 약 3억원의 운영손실 보전금은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 안전과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이 모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